

정읍시, 사계절 관광객 찾는 관광도시 박차

2019·2020년 '정읍방문의 해' 내장산 등 토탈관광 기반 구축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 조성 방문객 감동·재미·멋 만끽 최선



정읍시가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광 정읍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연 친화형 캠핑장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 전경.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2019년과 2020년을 '정읍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관광 인프라에 정성을 더한 관광 정읍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정읍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고 관광객유치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다양한 관광 자원과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등의 콘텐츠를 가미해 지역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백제요정 정읍사 관광지,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또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운영과 관광 안내도·표지판 정비, 관광숙박 관련시설 점검 등 관광객 수용 인프라 정비와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장산문화광장을 지역의 토탈관광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

어드벤처(adventure)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이 핵심이다.

시는 총 40억7000만원을 투입해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실내형 복합놀이시설을

조성한다.

이 시설에는 가족 단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16종 41개 모험놀이시설을 비롯해 VR 체험과 스포츠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지역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드론시장 선점을 위해 오는 5월 4일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드론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에서는 축하 공연과 드론비행,

드론축구와 드론레이싱 대회가 진행되고 드론 관련 전시와 다양한 홍보·체험 프로그램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저렴하게 드론을 구입, 조립과 비행기술 교육을 받은 후 경진대회(5월 5일)에도 참가할 수 있다.

자연 친화형 캠핑장인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 활용 방안 마련에도 집중한다.

시는 오는 5월 17일 이장소를 활용한 캠핑대회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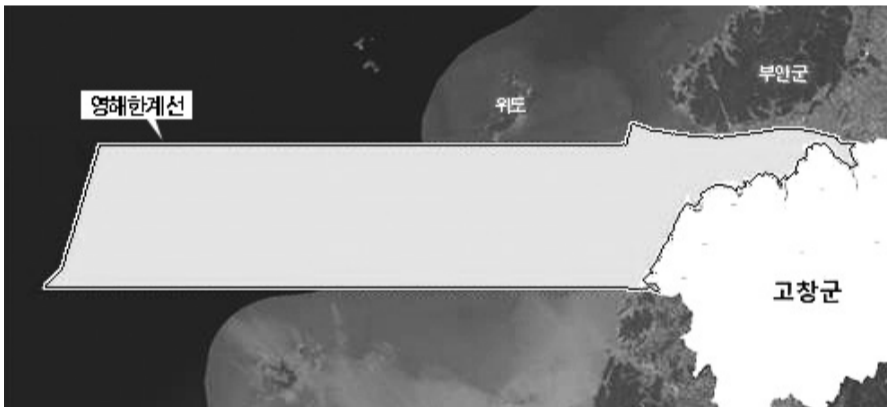
이 캠핑장은 3만295여㎡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일반캠핑 37면과 오토캠핑 31면, 글램핑 6면, 카라반 3면, 자가 카라반 5면 등 모두 82면이 갖춰져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올해는 '2019-2020 정읍방문의 해' 원년인 만큼 특별히 더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감동과 재미, 정읍의 맛과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구시포항 해상 경계선 분쟁... 고창군, 부안군에 '판정승'

현재 "새 해상경계선 설정" 권한쟁의서 고창군 손 들어줘



서해 구시포항 앞바다 해상경계선을 두고 벌어진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의 관할 분쟁이 고창군의 사실상 승소로 마무리됐다.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 경계를 따라야 한다는 부안군의 주장 대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고창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고창군이 부안군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현재 정한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아래쪽은 고창군, 위쪽은 부안군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고창군은 2016년 10월 부안군이 관할하는 구시포항 앞바다를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며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구시포항 앞바다는 고창-부안과 고창-영광 경계에서 바다 쪽으로 12해리(1해리는 1.852km)까지다. 여기에 (주)한국해상공역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신고하면서 두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졌다.

쟁점은 국가기본도 상의 기존 해상 경계를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해상 경계를 확정해야 하는지였다.

고창군은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 경계는 바다 위의 섬이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지를 알리는 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창 앞바다의 해상풍력단지 예정지는 당연히 고창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예정지는 부안군의 관할 해역이라고 맞섰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일자리 창출·SOC 사업 중심 군산시, 재정 신속 집행 총력

군산시가 '2019년 재정 신속 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이승복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재정 신속 집행추진단을 구성, 신속 집행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등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및 경제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자 일자리와 SOC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신속 집행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고용안정을 위해 추경에 확보한 희망근로사업과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로 개설,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 예산은 6088억원"이라며 "오는 6월 말까지 정부 목표인 55.5%(3348억원)를 초과 달성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시, 배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대기오염집중측정소·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가능

익산시는 모현동 배산택지개발지구내 전북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택지개발사업 당시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계획한 부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우수저류시설 상부에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 부지를 활용해 대기오염집중측정소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부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월 전북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최종부지로 익산시 모현동을 선정함에 따라 결정됐다.

아울러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다. 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청사로 결정돼 있는 부지를 대기오염집중측정소 등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계획안에 대해 앞으로 14일 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익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께 변경결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대기 중 오염물질을 정밀측정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유휴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시, 배스 등 수매 외래어종 퇴치

남원시가 물속 생태계 보호를 위해 외래어종 퇴치에 나선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물속 생태계 교란의 주범인 배스와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외래어종 물고기 수매를 시작한다. <사진>



시는 올해 외래어종 3.2t을 수매할 예정이다. 수매는 요천생태습지공원에서 매주 월요일(오전 10시~ 낮 12시)에 진행된다. 수매 가격은 냉동하지 않은 어류는 kg당 5000원, 냉동은 kg당 3000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배스의 산란기에 맞춰 인공산란장 50개를 설치한다. 인공산란장에서 배스가 알을 낳도록 유도한 뒤 수정란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 요천과 광치천 주변에 서식하는 가시박 등 외래식물도 변성기 이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남원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t의 외래어종을 수매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순창군,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반 운영

순창군이 농촌 들녘 미관을 저해하는 영농 폐기물 수거를 위해 폐기물 수거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야산이나 하천, 농경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로 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앞서 군은 지난달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2억7000여만원을 확보하고 각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는 등 사업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처리반 운영으로 영농 폐기물 수거 외에 폐 비닐 집하장 및 클린 하우스 관리 실태 점검도 나서는 한편 불법 쓰레기 소각금지 행태 감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처리반은 읍·면별로 4명, 본청 1명 등 총 45명으로 운영되며, 각 읍·면은 이달 안으로 인원을 선발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7월까지로 읍·면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처리반 인원 선발은 각 읍·면별로 진행되며, 신청할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순창군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 처리반 운영은 야산이나 하천, 농경지 등 무분별하게 버려진 장기 방치 영농 폐기물에 한해 처리하는 것"이라며 "생활쓰레기 수거는 이번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8500만원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매매 - 7,5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